

제26회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총 평

- 차 상 명 -

1. 출제문제 분석

【문 1】 가집행선고, 재심판할

- (1)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공탁을 했으나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고, 이후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, 법원의 가지급물반환신청 인용해야 하는지 여부
- (2)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재심판할)

【문 2】 의 1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

- (1)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, 전·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
- (2) [1]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[2]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어지는지 여부

【문 2】 의 2 독립당사자참가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,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(사해방지참가)

2. 총 평

【문 1】 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문제는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불의타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편한 시험이란 없겠습니다만 1번 문제로 나와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. 재심판할 법원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주의를 요하는 판례가 나왔는데 평이한 문제는 아니나 3순환 1회 모의고사 2번 문제에서 출제되어 다뤄 본 문제여서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.

【문 2】 의 1의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문제는 민소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많이 다뤄보는 채권자대위소송과 대비하여 낸 흔적이 보이니 답이 빠른 무난한 문제로 모두 다 답안작성을 잘 하셨을 겁니다. 특히 중복소송은 기관력과 더불어 특 A급이라 언제나 나오는 테마이기도 합니다.

【문 2】 의 2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참 의외입니다. 불과 2년 전인 2018년 제24회 시험 1번 문제에서 총 50점 배점으로 권리주장참가 전반을 묻는 종합선물세트로 나왔는데 이번엔 유명한 판례인 사해행위취소 목적의 사해방지참가가 출제되어, 나올 게 나온 거지만 또 독당문제라 좀 그렇습

니다. 물론 다른 시험에서 기출 되었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어 결론은 익히 알아서 다 맞췄을 겁니다.

수험생의 시간은 딱 둘 뿐인 것 같습니다. 시험치기 며칠전, 합격자 발표 며칠전. 이제 막 시험은 마쳤으니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합격자 발표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. 시험 10달 전이나, 2달 전이나 2주전이나 하루 전이나 모두 시험 당일과 또 같다는 마음과 자세로 시간을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^^